



숲 가꾸기는 산사태를 예방해 줍니다

이번 호우로 침수, 도로유실, 산사태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방치된 간벌목이 댐을 이루면서 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MBC 9시뉴스)', '상류에서 떠내려온 간벌목 수백톤이 교각에 걸리면서 댐역할(강원일보 2006.7.18일자)', '방치된 간벌목이 水磨·火魔 키운다'(한국일보 2006.7.19일자), 등을 보도하면서 하천으로 유입된 나무들이(유목,流木)이 숲가꾸기를 통해 생산된 간벌목으로 단정 짓고, 이번 피해 가중의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절치 못한 원인 분석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청에서는 2001년도 루사태풍과 2003년도 매미 태풍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조사·분석한 바 있으며, 이번 보도된 지역의 '유목(流木)'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상류지역 산사태나 계류의 표토 유실시 뿌리 채 뽑혀 하천으로 유입된 나무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벌작업은 오히려 나무뿌리와 임목의 성장을 촉진시켜 산사태 및 토사붕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정부에서는 재해방지목적의 숲가꾸기(간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 숲가꾸기 사업의 영향과 효과를 국민이 오해하거나 향후 수해예방대책에서 혼선도 생기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 사실(MBC 7.16)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금번 집중호우시 피해가 컸던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한계리 일원의 경우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최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시한 바가 없는 지역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각에 걸려있는 유목은 대부분 도로유실과 장수대·옥류탕 주변 계곡에서 뿌리채 뽑혀 내려온 나무나 자연 고사목, 풍해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매미'의 피해지에서 조사·분석한 것을 보면 수해의 일차적인 원인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계곡 토석류의 대량 발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영서지역 피해의 경우도 집중호우로 인한 시간당 강우량이 80mm 이상으로 산사태 유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따라서 계곡이 좁은 계곡부를 중심으로 많은 유량과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변 토석류와 토층 밑의 바위들이 함께 유출되어 수십 톤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수해지역 하천에 유입된 나무는 대부분 산사태로 인하여 길이 10~20m에 달하는 입목(立木)이 뿌리 채 뽑혀 유입된 산사태 유실목, 주변 건설공사 지역의 폐잔목, 도로 유실지역의 가로수 유실목 등으로 간벌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더욱이 산림청에서는 그래도 간벌목의 하천유입을 우려하여 숲가꾸기 사업시 하천, 계곡 인접지역등 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재해우려구역으로 지정하고, 간벌목 등 숲가꾸기 산물을 일제히 수거하고 있으며 특히, 계곡부의 만수위 지역이나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 이내 지역은 산물을 수거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등고선방향으로 횡으로 정리·집재(集材)토록 함으로써 물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집 가능한 시기에 수거토록 하는 등 수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의 62%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이고, 특히 전체의 29%를 차지하는 인공림의 경우 지난 1970년대 이후 심은 어린나무로써 재해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 이들에 대한 재해방지기능 증진 목적의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산림청 훈령 제833호, 2004.2.14)」을 제정하고, 산림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은 산림재해방지림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04~'08)을 수립하고, 산림재해방지 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연간 약 4만ha씩 총 20만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호우 피해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 숲이 산사태와 수해에 저항력이 큰 건강하고 튼튼한 숲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량 확대와 숲가꾸기 기술 향상에 노력하여 수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